

# 미운 오리새끼의 비상을 보라!

KIA 전태현, 슬라이더 재무장...입단 3년만에 부활부  
유동훈·손영민·신용운 등과 살아남기 '언더 전쟁'



‘미운 오리새끼의 비상(飛翔).’ 각 구단의 한 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전지훈련은 선수들에게는 생존 경쟁의 1차 관문이다. 코칭스태프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야 하는 경쟁의 장이자 기회의 무대다.

동안 1피안타 1사구구 1실점을 기록했던 전태현은 13일 두산과의 연습경기에서 다시 한번 선발로 등장해 승리투수가 됐다. 3이닝 동안 3개의 볼넷을 허용했지만 피안타 없이 탈삼진 하나를 기록하는 등 무실점 투구로 승을 챙겼다. 지구 최고구속은 143km, 특기인 커브도 위력적이었다.

군산상고 출신의 언더 투수 전태현이 우여곡절 끝에 프로 데뷔 3년 만에 기회의 무대에 올랐다. 전태현은 어렵게 찾은 전지훈련지에서 위력적인 피칭을 앞세워 1군 정복에 나섰다.

조병현 감독은 경기가 끝나 후 슬라이더 전태현에게 만전을 용돈으로 쥐어 주며 이날 플레이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절묘한 커브가 일품인 전태현은 올 시즌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삼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부상방지’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7일 자체 오프장에서 홈팀 선발로 2이닝

지난 2008년 1차 지명으로 당당히 프로에 입문했던 전태현이지만 부상 때문에 앞선

두 차례의 전지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다. 웨이트를 하다 오른쪽 발가락 부상을 당하며 첫 전지훈련에서 제외됐다. 발가락 부상으로 투구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어찌어찌 도 무리가 갔고, 두 번째 전지훈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1차 지명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팬들에게 전태현은 ‘미운 오리’가 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참가한 전태현은 성장세를 보이며 조병현 감독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입단 이후 1군에서 4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친 전태현에게 찾았은 천금같은 기회다. 하지만 아직 전태현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태현이 마운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언더 전쟁’을 벌여야 한다. 지난해 불펜의 핵심멤버였던 유동훈, 손영민은 물론 군 대우 후세한 신용운, 차정민 모두 언더 투수다. 백조로 날아오르기 위한 ‘미운 오리’의 날개짓이 일본 미야자키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2

### 기록보단 친목·화합 ‘무한 질주’

#### 광주점단마라톤클럽

“올해는 기록 보다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화합위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3·1절전국마라톤대회에서 하나뿐 모습을 보여주겠다.” 광주점단마라톤클럽(회장 박익수·이하 ‘참마’)은 ‘함께하면 즐겁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번 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001년 창립, 회원 60여명으로 구성된 ‘참마’는 올해부터 타 시·도 대회에 참가할뿐 여행도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응원차 동반하는 회원과 가족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대회 주변 명소를 찾아 관광도 즐긴다는 것이다.



#### 서브-3, 울트라 완주자만 10여명

‘참마’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훈련코스이다. 과거원에서 모여 몸을 푼 후 인근 장성과 담양 경계선의 한적한 구간을 달린다. 차량소음이 적고 안전한 구간인 만큼 다른 동호회에서도 훈련 장소로 선택할 정도이다. 일주일에 세번(화·목·일요일)씩 달리는 ‘참마’는 평일엔 저녁 8시 과거원~장성 남면 삼거리까지 15km를 달린다. 일요일엔 장거리 훈련으로 30km를 달려서 실전에 대비하고 있다. ‘참마’에는 자체적으로 만든 ‘명예의 전당’이 있다. 이곳엔 서

브-3(풀코스 3시간 내 완주)달성자와 울트라대회 완주자만이 이름을 남길 수 있다. 회원 중 정상코스에는 풀코스 2시간36분의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브-3도 12차례 기록한 실력과 있다. 김용석·임정채·정순길 씨 등 10여명은 울트라 대회에도 참가해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는 회원들이다.

상반기 중 지리산 종주, 체육대회 등 친목 행사도 계획된 ‘참마’는 이번 대회를 통해 끈끈한 가족애를 다시 한번 과시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올해 광주 7곳·전남 17곳에 생활체육시설 조성”

### 문광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올해 생활체육시설 신규 사업지로 광주 고·광신대 등 광주 7곳과 해룡고·동강초 등 전남 17곳이 선정됐다. <표 참조>

| 시·도 | 국민체육센터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 개원형학교 다목적체육관                    |
|-----|----------------|---|---------------------------------|
| 광주  | -              | 광주고, 서석중·고, 효덕초, 전남고, 광산구, 북구, 광신대(7)       | -                               |
| 전남  | 신안, 광양, 완도 (3) | 지산초, 동강초, 관산중, 삼향동초, 해룡고, 나산중고, 영암군, 강진군(8) | 노회고, 중앙초, 장평초, 고서초, 대연초, 임성초(6) |

신대 등 7개소에 설치하며 각각 3억5천만원씩 정액 지원될 계획이다. 전남은 지산초·동강초·관산중·삼향동초·해룡고·나산중고·영암군·강진군 등 8곳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대상지로 선정됐다. 국민체육센터는 신안·광양·완도 등 전남 3곳에 건립기로 결정했으며 지원금은 30억원 기준으로 재정지출도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전남 노회초·중앙초·장평초·고서초·대연초·임성초 등 6곳엔 개량형 학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기로 결정됐다. 다목적체육관은 지역별 사업 규모 등에 따라 4억8천만원~9

억원 내에서 각각 지원되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건립된다. 광주와 전남생활체육회 관계자는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다”면서 “시도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까지 체육진흥기금을 투입해 전국에 수영장 등이 딸린 국민체육센터 153개소를 비롯해 잔디 조성 및 우레탄 트랙 설치, 운동장 체육시설 911개소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지원 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관광 구레’ 홍보...떨수록 즐거워요

#### 구레마라톤클럽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구레마라톤클럽’(회장 김명수·이하 ‘구마’) 회원들이다. 지리산 자락에 설립장을 끼고 있는 구레의 지리적 특성상 ‘구마’는 전국 어느 동호회도 부럽지 않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즐겁게 달리자’는 슬로건처럼 이들은 기록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달리는 게 목표이다. 이번 광주일보 3·1절전국마라톤대회에서도 참가위원 모두 부상없이 완주해 올시즌 ‘즐거운 질주’에 시동을 걸고자 한다. 지난 2002년 설립돼 회원 40여명인 ‘구마’는 일주일에 두번씩 달리기 모임을 갖고 있다.



유일한 ‘서브-3’(풀코스 3시간 내 완주) 기록 보유자이다. 100km 울트라 대회 완주자도 있다. 여성회원 서영숙씨와 광화문마라톤 소속의 임관중씨는 지난해 광주울트라마라톤에 출전해 끝까지 달릴 기록을 발휘하기도 했다. ‘구마’는 구레군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회 참가때마다 산수유축제 등 군 행사와 이미지 알리기에도 최선을 다한다. 또 지난해에는 불우한 고교마라톤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운동장을 베풀기도 했다. 3·1절마라톤대회에 올해도 두번째 참가하는 ‘구마’가 이번 대회에서도 ‘즐거운 질주’를 펼칠 것을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U-15 광덕중 축구팀 출항...내일 춘계 연맹전 참가

신생팀 광덕중 축구부가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프로축구 광주상무의 U-15 세팀으로 출전한 광덕중이 18일 강원에서

개막하는 제4회 춘계 한국(U-15) 축구연맹전 신입생 대회에 참가한다. 광덕중의 공식 데뷔무대가 될 이번 대회에는 전국 53개팀이 참가해 25일까지 열전

을 벌이게 된다. 광덕중은 대구대륜중, 강원 육민관중과 M조에 편성돼 예선에 나선다. 김성구 감독은 “동계훈련 기간 선수들이 열심히 데뷔전을 준비 했다”며 “신생팀이라고 해서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대회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불우 고교 마라톤 선수에 장학금 지급

화요일엔 둔치공원에서 오후 6시30분에 모여 공원을 10바퀴씩 돌고, 주말엔 선진강서 곡성기차마을 혹은 하동남대교까지 약북 30km 구간을 달린다. 꾸준한 훈련으로 남다른 기량을 과시하는 회원들도 탄생한다. 20여명은 이미 풀코스 완주의 짜릿함을 맛보았으며, 이들 중 유근배씨는 지금까지 10차례의 경험을 갖고 있다. 마라톤 입문 8년째인 조대웅씨는 자신의 최고기록 2시간 58분으로 클럽에서

## 천기누설

특허청 등록 제 164803호

### 운명! 사주!

강 애산 원장 직접운영명칭 일인당 1만원

궁합 2만원 택일 5만원(결혼, 출산, 이사)

### 저소득대로 물려주는 24K 만사형통 황금황제부적 출세!

소원성취부, 심재예배부, 안전부 (특별판매가 33만원)

\* 각 가정에 하나씩만 가지고 있으며 식구 모두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 천기누설 칩서사주카페

하룻밤은 무료!

예약 상담 (062)222-9670  
010-2663-9766  
YMCA 뒷골목 흥능빌딩 2층  
광주은행 감정자 006-121-74071

##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연 3%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농촌, 과수원·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시장이에서 배송할때도~ 창고에도~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대리점 취급업체 영업사원 밀려보입니다

농기계 관련 사업자 유사업종 경험자

무공해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사용합니다

- 원 전기로 약 5,000원 정도로 부담이 적음
- 충전식 배터리도 사용하며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 연세 어디서나 편리한 A/S
- 부후의 수리비를 인성사의 A/S가 가능합니다.
- 장거리라 농협을지 통한 초기 구매부담 최소화
- 판매가의 90% 상거래자로서, 1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
- 중저서 40km 주행거리(재량 200kg)

일반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지급 가능

한라헬스텍(주) TEL 062) 956-8823  
061) 852-8896  
H-P 010-9468-3282

## 해령법률경매

사원모집중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정 위치:법정명동

| 지역 | 소재지 | 면적(m²)    | 건평    | 최대가    | 비고    |
|----|-----|-----------|-------|--------|-------|
| 광주 | 동산구 | 297/827   | 1277㎡ | 7억     | 1177㎡ |
|    | 북구  | 186/348   | 891㎡  | 4억5천   | 1177㎡ |
|    | 북구  | 467/1592  | 1352㎡ | 4억5천   | 4527㎡ |
| 전남 | 완도  | 1470/2473 | 3776㎡ | 12200㎡ | 1177㎡ |
|    | 완도  | 172/304   | 358㎡  | 1억1천   | 1177㎡ |
|    | 완도  | 107/78    | 156㎡  | 1억     | 1177㎡ |

| 지역 | 소재지 | 면적(m²)   | 건평   | 최대가   | 비고    |
|----|-----|----------|------|-------|-------|
| 전남 | 완도  | 1879/361 | 458㎡ | 2억5천  | 2500㎡ |
|    | 완도  | 373/517  | 451㎡ | 2500㎡ | 2500㎡ |
|    | 완도  | 373/517  | 451㎡ | 2500㎡ | 2500㎡ |